

진짜 부자들

이동식/KBS보도국 국제부장

미 오리건주 메드포드에 살던 고든 앨우드씨는 평생동안 극빈자용 식량배급소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그는 돈 때문에 전화도 놓지 않았다. 그런 앨우드씨가 지난해 10월 79세로 사망할 때 보니까 그에겐 1천만달러나 지니고 있었다. 앨우드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무료로 음식을 줬던 적십자사와 구세군 등 몇몇 기관에 9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나머지만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 클라라 출신의 올해 74살의 어윈 유런씨는 3년 전 자신의 친구가 시장으로 있는 버지니아주의 리스버그 마을에 100만 달러를 기부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그는 모텔에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의 평범한 백발노인으로 지내고 있다. 엄격한 생활 그 자체를 좋아했던 유런은 3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최근에도 불우청소년과 동물보호기관 등에 수십만 달러를 보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부자란 어떤 것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최근의 미국 경제가 호황이 계속되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미국 가정이 880만 가구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들 부자들은 왜 스스로를 낮추며 돈을 모으고 죽기 전에는 그 돈을 다 누군가에게 주고 가는 것일까?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같은 행동의 원인을 두려움, 죄의식, 습관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즉 이들은 하루 아침의 경제적 파탄이나, 재산이 노출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덜 가진

사람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있으며, 일생동안 검약 생활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임을 숨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자들은 새 셔츠 하나도 사지 않을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개 재산을 자선하고 죽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도 많은 할머니들이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경우를 요즈음 부쩍 자주 보게 된다. 대부분 시장 통에서 샅바늘질을 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고 평소에는 주위사람들도 전혀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데도, 어느날 생을 정리하면서 거액의 선뜻 내놓는다.

이들 할머니들은 못배운 것이 한이 됐고, 집안이 어려워 자식을 제대로 못가르친 것이 한이 됐는데도, 자식들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장학금으로 훌쩍 내 놓는다.

부자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부자가 티를 내지 않고 어렵게 사는 것은 코끼리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진정한 멋은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감추는 데 있는 것 같다.

진정한 부자는 생전에 내가 부자라고 티를 내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추락하는 사람들보다는 부자의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자신의 몸 하나의 씹씹이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나머지를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라.

그런 면에서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의 보도는 이들 부자들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행복한 고행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서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준다.

